

열 둘을 세우셨으니

말씀: 마가복음 3:7-19

요절: 마가복음 3:14,15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를 불러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있는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목자들로 세움 받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반발하고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낡은 옷, 낡은 가죽부대와 같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받아들이고 함께 할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열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사역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허물과 단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도우셔서 위대한 사도들로 키우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12제자들처럼 허물지고 단점도 많지만 큰 소망을 두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새포도주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망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7-12절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였는가 알 수 있습니다. 7,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7,8)”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곳이 갈릴리 지방이고, 여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또 남쪽에 유대와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왔고, 북쪽의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병환자를 깨끗케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베푸시고, 바리새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한 쪽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큰 일을 듣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구름떼와 같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병을 치료함 받고자, 귀신을 쫓아내고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귀신처럼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두려워하며 절규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방에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이용해서 대중 집회를 열거나 자신을 대적하는 종교지도자들에게 보란 듯이 세를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 조용히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산에 가셨을까요? 몰려오는 병들과 귀신들린 양들을 피해 머리도 식힐 겸 등산하러 가신 것입니까? 누가복음 6: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이 방황하는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셨

을 것입니다. 병들고 귀신들린 양들은 많은데 그들을 도울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병들어 고통하고 귀신들어 부르짖는 이 불쌍한 양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들을 도울 목자를,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도들을 키우고자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마침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평소에 키우고자 마음에 두신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그들 중에는 특이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가롯유다를 빼고는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고, 또한 세리레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지식이 많거나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지만 순수하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석상에 진열되어 있는 화려한 명품같은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친 원석같은 자들을 캐내서 그들을 보석같은 사람들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은 만들어진 준비된 정말 명품과 같은 사람들을 고르고 뽑아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심지어 자기도 자기안에 있는 가능성을 모르고 있었는데, 땅속 깊이 묻혀있는 원석과 같은 가능성을 캐내고 닦고 키워서 마침내 자기도 놀라고, 세상 사람들도 놀래키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로 키워 주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키우시고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28,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만일 잘나고 똑똑하고 명품과 같은 사람이 뽑혔다면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재능이 있고 잘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뽑혔지’ 하며 자기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정말 주님만을 자랑할 사람들,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실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3b절을 다시 봅시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이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이사야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살기 전에 선지자로 살면 연봉이 얼마인가요? 그 길 안전한가요? 장래가 보장되나요? 4대 보험은 된가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찾으시는데 나같은 사람이라도, 부지깽이 같은 나라도 쓰신다고 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그렇게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로 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는 등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큰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써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빚어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만들어 키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빚어 만드시도록 내 자신을 드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면 내 인생이 가장 빛나고 성공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앞,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빚어 만드실 때 가장 위대한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실패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막 인도하시고, 아니면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못맡기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목자님들께 물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살았는데 인생 이상하게 되셨나요? 꼬인 인생을 사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최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크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14a절을 봅시다. “이에 열 둘을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온 자 12명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열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새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우셨다’는 것은 ‘appoint’ ‘임명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불러서 처음부터 ‘이 사람은 제자다, 사도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다, 천국의 대사다’라고 임명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청와대 대통령이 원하는 자들을 세워서 임명장을 주면서 ‘중국대사, 베트남대사, 총리’로 임명할 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의 대사로 임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우형제는 저 넓은 중국대륙의 천국대사다’ ‘마태형제는 남북이 곧 평화통일이 되면 북한을 섬길 평양의 대사다’ 얼마나 비전이 되고 두근거리며 좋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 큰 모험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과연 세계를 품는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 중심이나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좀 키워 보고 나서, 1차 심사, 2차 테스트, 3차 심층면접, 4차 답력시험, 5차 인적성검사, 6차 외국어 시험까지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10년은 비정규직 제자로 도와보고, 그 후에 정규직 제자로 전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로, 사도로, 천국대사로 임명하여 세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키우시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역량을 보고 하겠다가 아닙니다. 따라오는 사람은 키우고 낙오하는 사람은 어쩔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책임지고 키우셔서 인류의 스승으로 만드시겠다는 예수님의 소망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믿어주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제자로 임명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영접해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보다 훌륭하고 능력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권

적으로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4절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절에서는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여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주님은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성별하여 세우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목자님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제자요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제자’ ‘나는 주님의 사도’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1: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대통령도 누구 임명하려고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견되면 후회하고 철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키워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4,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어렸을 때나 품안에 자식이지 나중에 커서도 계속 같이 있을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나가서 혼자 살지~’ 저도 우리 아들들을 사랑하지만 방학이 되어 한달내내 하루종일 같이 있으려면 너무 힘듭니다. 방학 끝날날만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문제 많은 12명의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open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아예 총체적으로 배우도록 open 하셨습니다. 제자의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24시간 항상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옛말에 근주자적(近朱者赤)이요,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는 뜻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검은 집단에 들어가서 보스와 함께 지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와 허물가운데 있던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린도전서 1: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니 감사한 일입니다.

제자의 삶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눔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

누었습니다. face to face로 얼굴을 대하듯이 교제하고 대화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성막에서 나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왔다고 했습니다(출34:35).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볼수가 없게 되자 수건으로 가렸다고 하였습니다. 이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숙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본래 모세는 한 혈기 하던 자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죽인 자를 주먹으로 때려 죽여서 모래에 묻어 버리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face to face로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 그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섬기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큰 그릇의 위대한 목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며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18절에 “우리가 다 ---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여, 베드로후서 1:4b절에 “신의 성품(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탈렌트 같은 미남, 미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웬지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에서는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을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식사하며 투자 비법을 배우고자 하기 때문에 매년 ‘워런 버핏과의 점심식사’라는 이벤트를 열고 경매를 붙입니다. 한번은 뉴욕 경매시장에서 가이 스피어(Spier)씨가 65만달러, 우리 돈으로 7억 2천 만 원을 냈습니다. 한끼 식사하는데 7억 2천만원을 냈습니다. 그와 식사하고 대화하고 나서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사실 그 책을 보면 투자 비법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유명한 전문가에게 한 수 배울려면 엄청난 댓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65만달러 수업료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강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톨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완전 공짜, 무료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20절에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점심식사>가 완전 무료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만 열면 얼마든지 나를 초청하셔서 무료로 먹여 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우리의 가장 좋은 투자처가 어디인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이윤을 남기는 인생을 사는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뭘 잘하고 훌륭했을 때만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허물이 있어도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실수해서 종교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나서서 변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도 ‘아이고~ 잘못 택했네’ 하고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사랑의 비치파티까지 열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찾아 오셔서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20절에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택하시면 평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예수님의 제자는 영원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뽑아놓고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품에 끼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존적이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내 보내셔서 직접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전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말씀을 직접 전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숙하지만 직접 양들을 돕도록 실습을 시킵니다. 이는 제자들을 자립적인 믿음의 종들이요, 성경선생이요, 영적 지도자로 키우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역량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훌륭한 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알아도 직접 양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영적으로 씨름해 봐야 양들의 목자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전도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떨때는 오장육부가 뒤집힐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고전1:21). 우리는 전도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더 연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자유분방한 양도 전도하시고, 니고데모 같은 지성인도 전도하셨습니다. 세리같이 이기적인 자도 전도하시고, 어부같이 자기 일에 충실한 자들도 전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배워서 제자들은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전도하고, 공회 앞에서도 전도하고, 소아시아, 유럽, 땅끝까지 가서 전합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세계를 품는 위대한 사도들로 성장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남부에 가보면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 가면 ‘토마스’라는 이름이 많다고 합니다. St. 토마스 교회도 많다고 합니다.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 몸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믿겠다는 말 때문에 의심의 대가로 찍힌 도마가 그당시 땅끝이라 여겨졌던 인도땅에까지 와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도마는 아무것도 안했을 것 같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배웠을 때 후에 두려움을 모르는 불사조 같은 복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종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귀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안일귀신, 정욕귀신, 미움귀신, 시기심 귀신, 절망귀신, 열등감 귀신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세력에 놀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쇠도 삼킬만한 팔팔한

젊은이인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드러누워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 일어나 게임방, 노래방등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육신의 본성대로 살다가 죄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귀신들려 고통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3: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6:18절에서 사도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택한 목적이,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사탄의 권세아래 있는 자들은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주십니다. 그 권능은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덧입게 됩니다.

에베소서 6: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권능을 공급받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우리가 힘써 말씀투쟁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내적 힘을 덧입게 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12,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 연약한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자기들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명하니 귀신들이 나가더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할 때 능히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세우신 자들에게 영권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특권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권능을 이미 주셨음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 받은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16-19절은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몬이 나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몬’은 ‘모래’라는 뜻인데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그가 반석처럼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래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격이 우레처럼 급한 자들이었습니다(눅9:53,54).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천지를 진동케 하는 메신저들이 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됨으로 부활의 산메시지를 전하였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위대한 성경기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단순하지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된다고 말하는 긍정의 아이콘입니다. 빌립은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부정적인 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래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준비된 제자였습니다. 친구 나다나엘(바돌로매)을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소개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분”, 곧 메시아로 소개했습니다(요1:45).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는데 나중에 변화되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의 대가였지만 후에 인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는 평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으로서 데모를 많이 하던 자였습니다. 가롯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출신과 성격, 직업이 다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서 각각의 가

능성을 보시고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 다릅니다. 지금도 여러모로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이래서 안돼’ 하며 단점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더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잘 키우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로 키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영접하고 믿어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덧입고 이 시대를 밝히는 큰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